

목록

★ SSAP 보고서_유지수UCM.....	1
★ SSAP 참여 보고서 (1) 기종민.....	3
★ SSAP 참여 보고서_이세미 이세미.....	5
★ SSAP 참여보고서)_UCM유지수.....	9
2023_2-2024_1UIW나현준 나현준.....	11
2023-2 UMKC 구선민.....	13
2023-2, 2024-1UCM박지현 박지현.....	16
2023-2,2024-1MSSU배수연 배수연.....	19
2023-2_2024-1 UCM이주연 이주연.....	22
2023-2~2024-1 UMKC 박수안.....	24
2023-2~2024-1UCM이소은.docx 이소은.....	26
2023-2~2024-1UCM황현서 황현서.....	28
2023-2ASU 김량현 보고서.....	33
2023-2UCM김기찬 김기찬.....	35
2023-2UMKC안지은 안지은.....	37
2024-1UCM최민석 최민석.....	42
SSAP 참여 보고서 UCL 202121121 스마트정보통신공학과 유진하.....	44
4. Digital Electronics and Programmable Systems, where we were taught about different circuit components and made our own circuits.	49
최은재 보고서.....	53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유지수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2 스페이스디자인
파견시기	2023 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United State
보고서 제출일	2024 년 7 월 15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사진 첨부 가능) 본 자료는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학생에게 공개됩니다. 이탤릭체로 작성된 안내 내용은 제출 시 삭제해 주시고, 이하 내용 작성 시 폰트 형식이나 크기는 변경하지 말아 주세요. 작성된 자료는 <https://goo.gl/BLPVRK> 로 업로드 바랍니다.]

내용

저는 2023학년도 UCM으로 2학기 동안 교환학생을 마친 상명대학교 스페이스디자인학과 유지수라고 합니다. 1년동안 UCM에서 잊지 못할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았고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SSAP교환학생이 다른 여행과 달랐던 점은 1년동안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짧게 머무는 것이 아닌 공동체 속 일부가 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에게 교환학생은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서 그 나라의 문화, 색깔, 가치관, 역사 등을 배울 수 있는 터닝포인트였습니다.

UCM을 선택한 이유는 제 전공 학과가 있는 학교가 미국 내에서 UCM포함 두 곳 뿐이었는데 그 중에서 UCM이 더 다양한 전공 및 교양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학교 내에 국제학생 커뮤니티가 잘 활성화 되어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명대학교와 UCM은 오랫동안 교환학생 체결을 맺었고 상명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UCM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온 학생분들의 다양한 후기들을 읽을 수 있었으며 가장 검증된 학교라고 생각이 들어 UCM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UCM를 선택한 것에 후회는 없으며 학교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UCM에서 교환학생을 하며 저의 많은 부분이 변화했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을 하며 얻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 째로, 영어입니다. 다들 영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거같은데 물론 한국에서 영어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영어 회화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해서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영어가 부족한 상태로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대화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인종차별을 받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으나 미국에는 정말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국가이다 보니 다양한 영어 발음에 사람들이 적응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영어를 좀 버벅이더라도 대부분의 미국분들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할 것입니다. 미국분들은 생각보다 정말 친절하셨고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영어로 발표를 하거나 사람들과 얘기할 때 편안하게 말할 수 있으며 생활에서 필요한 영어는 모두 자연스럽게 습득되기 때문에 영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늘 영어에 노출이 되고 영어를 입밖으로 내뱉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 매 순간순간이 영어의 연속이었습니다.

두번 째로, 저의 내적 변화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내향적이고 남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오고 저를 좋게 봐주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저의 성격은 밝고 외향적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고 낯선 사람들과도 얘기하고 토론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있을 때보다 저를 더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솔직해 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양한 교내행사, 친구들과 파티, 여행 등을 하며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문화를 알 수 있었고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매일 배구, 야구, 농구와 같은 스포츠를 즐기며 운동을 취미로 가질 수 있었고 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번째로 UCM에서 좋았던 점들은 교내에 교환학생 커뮤니티가 잘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국제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며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제학생커뮤니티를 통해 처음에 도착한 순간부터 떠나는 날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은 일반학생들과 다르게 학점에 대한 부담이 적어 내가 관심있는 분야의 수업을 자유롭게 선택해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진, 드로잉과 같은 순수예술에 관심이 있어서 그 쪽 수업을 수강했고 한국에서는 듣기 어려운 수업이다 보니 잘 수강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술, 디자인 전공이 아닌 분들도 이런 수업들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고 댄스수업, 볼링수업 등 재밌는 교양이 수업이 많으니 다양하게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UCM은 미주리 주에 다소 외각에 위치하여 도시와 다르게 대중교통이 없고 인프라는 열악한 편이지만 암트랙을 타면 캔자스시티, 시카고와 같은 도시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학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 저렴하고 물가도 대도시에 비해 합리적인 편입니다. 학교 안에서는 담배, 술, 마약이 금지되어서 치안은 정말 안전하였습니다. 밤 늦게 돌아다녀도 학교 안은 안전하였고 학교 안에 헬스장, 볼링장, 푸드코트 등이 잘 구비되어 학교 안에서 놀아도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만약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를 좋아하신다면 도심 쪽에 있는 학교를 추천드리고 안전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선호하신다면 UCM같은 컨트리사이드에 위치한 학교를 추천드립니다.

SSAP 참여 보고서를 마치며 1년 동안 타지에서 동고동락한 같은 학교 친구들과 제가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대학생활 중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단연 말할 수 있으며 교환학생을 다녀온 후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모두 대학생활 중 한 번은 해외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나를 찾기를 바랍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기종민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0년, 202020649
파견시기	20 학년도 하계방학 동계방학 2학기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단기언어문화연수(방학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보고서 제출일	2024 년 05월 25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사진 첨부 가능) 본 자료는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학생에게 공개됩니다. 이탤릭체로 작성된 안내 내용은 제출 시 삭제해 주시고, 이하 내용 작성 시 폰트 형식이나 크기는 변경하지 말아 주세요. 작성된 자료는 <https://goo.gl/bLPVRK> 로 업로드 바랍니다.]

내용

이 글을 쓰면서, 한 가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학생으로서 생활하는 동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오기 위해서 약 1 여년간, 휴학을 하고 기초 영어부터 시작하여 자매교에서 요구하는 공인영어성적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교환학생을 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공부에 쏟고,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노력과

결실이 후회 없는, 분명 만족할만한 결과로 돌아올 것임에 저는 확신합니다.

교환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많은 의미와 교훈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를 하며, 해외 친구들과 친해지고 영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학기 중간 중간 방학과 학교 기념일에는 미국 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할 수 있고, 캠퍼스에서는

현실적이 걱정과 스트레스 없이 본인이 학교에서 배우고 싶어 했던 과목들을 선택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학교에 재학하시면서, 원하는 수업을 듣고 싶지만 학점을 잘 주는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다거나, 혹은 팀플이 없는 수업을 고르면서 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원하는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닌, 학점에 의해서 수업을 선택하게 된 학생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임을 저는 명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으면서 생기는 현실적이고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잠시나마 떨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한 학년 씩 올라갈수록, “자격증은 무엇을 따야하지?”,

“방학에는 아르바이트나 인턴 붙어야 하는데,,” 라던가 혹은 “미래에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지?”

와 같은 현시적이고 복잡한 걱정거리와 근심걱정에 대해서 잠시나마 잊고 휴식을 하여

머리와 몸을 맑게 해줄 수 있습니다.

초반은 적응하기 힘들고, 영어가 어려워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중에 적응을 하시게 되면, 분명 값진 경험을 한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나도 짧으면 짧고, 길면 길었을 교환학생 생활동안, 인생에서 가장 뜻 깊고, 중요하고 행복한 기억만 쌓고 오게 되었던 저로써 두말 할 것 없이, 교환학생을 가시는 것에 대해서 추천드리 는 바입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이세미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1 의류학과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단기언어문화연수(방학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UCM)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4 년 5 월 28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사진 첨부 가능) 본 자료는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학생에게 공개됩니다. 이탤릭체로 작성된 안내 내용은 제출 시 삭제해 주시고, 이하 내용 작성 시 폰트 형식이나 크기는 변경하지 말아 주세요. 작성된 자료는 <https://goo.gl/bLPVRK> 로 업로드 바랍니다.]

내용

제가 UCM을 고른 것은 제 전공이 있는 학교가 두 군데였는데, 다른 학교가 터키 학교였기 때문에, 영어권인 미국 학교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학비가 싸지는 않지만 다른 선택지에 비해 싸기 때문에 UCM을 많이들 선택했습니다.

2023년도 8월부터 2024년도 5월까지 총 두 학기를 UCM에서 보냈습니다. 한 학기를 다녀오는 친구들은 아쉬워하고 두 학기를 다녀올 경우 마지막 달에 한국에 가기를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차가 없고 동네 자체가 캠퍼스타운이다보니, 한국에서처럼 놀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종종 주말에 암트랙을 타고 캔자스시티를 몇번 다녀오기도 했는데, 그쪽 숙소 가격이 만만치 않고 또 두박이로 다녀야 하다보니, 아주 쾌적한 여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Fall 학기에는 토요일마다 파머스 마켓이 열려서 친구들과 오전시간을 늘 같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전공이 의류학과라서 남는 시간들을 의류 공모전을 준비한다던가, 2학기엔 UCM 패션과에서 졸작 겸으로 연 패션쇼에 참여하여 옷을 만들면서 보냈습니다. (여기 오실 분들은 남는 여유 시간에 할 자기만의 무언가가 있어야 심심하지 않게 학기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fall학기는 학교에서 하는 이벤트가 많은데, spring학기는 학교 이벤트도 많이 없어서 심심할수도 있어요. 옷 만드실 의류학과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미싱있는 교실이 수업 외에는 열리지 않아서 중고 재봉틀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또 저는 다운타운에 있는 세컨핸드샵 구경을 좋아해서 자주 갔고, 두번째 학기에는 특히 주말마다 친구들과 걸어서 치폴레, 버거킹, 스타벅스 등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 제가 가장 여유롭게 살았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

지만 지금 한국에 돌아와 느끼는 건 아무래도 타지생활이다보니, 100% 편안하지가 않다는 것입니
다. 미국이 자유로운 분위기이고 남들이 뭘 하든 신경을 안써서 외국인으로서 느낄 서러움같은건
딱히 없었지만, 저 자체가 새로운 환경에 있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 타입이란 것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UCM에서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서로 의지하며 생활했기 때문에 두 학
기를 무사히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다녀와서는 확실히 시야가 트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인종적으로도 다양하고 개
성적으로도 다양한 미국인들 사이에서 살면서 저도 좀더 저를 중심에 두고 저답게 살아볼 수 있
었던 것 같습니다. 제 전공 관련해서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전공을 접
근하는 방식과 한국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패턴제작의
기본적인 수업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미싱 수업1,2 이렇게가 다 입니다. 졸작 수업도 따로
없고 졸작도 2022년도부터 선택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실망
하긴 했었습니다. 여기서 옷을 만드는 방식은 인터넷에 패턴을 파는 사이트에서 원하는 패턴을
구입하고 패턴에 맞춰 재단하고 옷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더 과감하게 여러 복종의 옷
을 만들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패턴 자체를 공부하지 않아 원하는 디자인을 실제로 구현하
는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패션과라기보다는 이론에 치우친 학
과라고 생각되어 실망이 컸지만, 오히려 다양한 옷을 만들어 볼 수 있어 옷만들기를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학기 수업은 디지털마케팅, 텍스타일 사이언스, fund apparel design& construction, drawing1,
fashion seminar1, choir 를 들었고 두 번째 학기는 spanish1, Evol Pop Art :Intro Rock Music,
contemporary art& design, adv apparel design& construction, choir 를 들었습니다. 두 학기 모두
들은 옷 만들기 수업과 콰이어 합창 수업은 너무 즐거웠습니다. 옷 만들기 수업에서는 원하는 옷
을 만들 수 있고, 콰이어에선 합창 연습을 하고 교내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중간, 기말 대신
에 콘서트를 엽니다. 마지막 학기엔 교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스
도 풀리고, 수업에서 좋은 친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은 추천하는 수업입니다. 수
업 구성이 알차고 교수님이 잘 가르치십니다. 교수 by 교수가 많이 심하다는 걸 느꼈는데, 어떤
교수는 정말 열정적인 반면, 어떤 교수는 수업을 너무 자주 캔슬하기도 합니다.. 저는 두번째 학
기에 들은 contemporary art &design 수업이 좋긴 했지만 교수님이 너무 캔슬을 자주 하셔서 학
비가 아까웠습니다. 드로잉 1도 교수님이 참 좋으시고, 미대 수업이라 과제도 많고 빠셴 수업입니
다. 그래도 늘 들어보고 싶었던 미대 수업을 들어 좋았습니다. 패션 세미나는 학점 채우려 들은
거였는데, 정말 비추합니다. UCM편 교양과 인성입니다. Spanish 수업도 좋았습니다. 100% 잘 따라
가진 못했지만, 스페인어 공부의 첫 걸음을 댄 느낌입니다. Rock 수업은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수업이고 관심이 없더라도 미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엔 참 좋은 수업입니다. 텍
스타일 사이언스는 기초에 그치는 수업이니, 한국에서 소재 수업을 들으셨다면 듣지 마세요!

여행은 가족여행으로 겨울방학때 아리조나의 세도나, LA를 8일정도 다녀왔고 2학기의 스프링브레이크를 이용해 뉴욕을 혼자 여행했습니다. LA, 아리조나는 부모님이 운전이 가능하셔서 차를 타고 돌아다녔는데, 차가 없이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서부 패키지로 그랜드캐년 쪽 여행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뉴욕은 뚜벅이로 혼자 다니기에 좋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올란드, 시카고(암트랙이용 10시간정도?), 샌디애고, 샌프란시스코 등등 많은 지역을 여행다녔는데, 방학, 학기중간에 쉬는 주간, 주말 등을 이용하면 여행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항이용시 캔자스까지 암트랙을 타고 가시거나 캔자스로 가는 차를 얻어 타야합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를 가실 분들은 절대 트램을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이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꼈답니다. 암트랙에 내려서 우버를 타고 이용하심을 추천드려요. 강건너 이스트 세인트루이스가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네요. 캔자스시티 무료 지상철은 안전했는데 세인트루이스 트램은 진짜 위험해요. 그리고 시카고의 특정 노선도 좀 위험하다고 친구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도 시카고는 다들 지하철 잘 이용하고, 여행하길 추천하더라고요.

기숙사에 대해 얘기하자면 저는 첫학기에는 ellis에 살았고 두번째는 crossing에 살았습니다. 크로싱을 강력추천합니다.. 엘리스도 지나고보면 룸메들이 좋았어서 나쁜 경험은 아니었지만, 주방이 없고 방자체를 같이 써야해서 프라이버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크로싱은 각방이라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고 주방도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룸메랑 서로 초반에 물을 합의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안하고 그냥 살다가 룸메가 학기 중반부터 남자친구를 데려와 밤에 시끄럽게 해서 다툼아닌 다툼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상의하셔서 스트레스 없는 교환학기 보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국제 학생회에 들어가서 어울려 생활하는 건 선택사항입니다. 저는 어울려 놀았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나와 비슷한 처지의 다양한 국적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국제학생들에게 매우 호의적인 그룹입니다. 저는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운영진 친구들(UCM학생들)끼리 마지막 학기에 다툼이 있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긴 했지만 크게 신경쓰진 않았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느낀 건 모든 사람을 알고 오버할 필요도 없고,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해 선을 그어버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적정한 페이스대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시고, 미국에 가신만큼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골 마을이라는 게 저는 UCM의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할 것도 그리 많지 않지만, 친구들과 함께 혹은 혼자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알게 되는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생활력도 강해지고요. 그리고 여행으론 절대 오지 않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미국 동네에 녹아 들어가 살아보았다는 게 오히려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

기에 있는 동안은 몰랐지만, 한국에 돌아와보니 저의 만성 피로가 없어진 걸 알게 되었어요. 미국에서도 나름 바쁜 날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거기서의 삶의 템포가 느리다보니 해결이 되었나 봅니다. 너무 좋은 기억들이 많고 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교환학생 기간이었습니다. 지금 보니 뭔가 미화되었나 싶기도 하네요.. 기억해보면 친구들과 한탄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UCM이 시골마을의 단점은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루해질 수 있어요. 저를 교환학생에 보내준 상명대에 감사로 보내며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유지수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2 스페이스디자인
파견시기	2023 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United State
보고서 제출일	2024 년 7 월 15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사진 첨부 가능) 본 자료는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학생에게 공개됩니다. 이탤릭체로 작성된 안내 내용은 제출 시 삭제해 주시고, 이하 내용 작성 시 폰트 형식이나 크기는 변경하지 말아 주세요. 작성된 자료는 <https://goo.gl/BLPVRK> 로 업로드 바랍니다.]

내용

저는 2023학년도 UCM으로 2학기 동안 교환학생을 마친 상명대학교 스페이스디자인학과 유지수라고 합니다. 1년동안 UCM에서 잊지 못할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았고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SSAP교환학생이 다른 여행과 달랐던 점은 1년동안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짧게 머무는 것이 아닌 공동체 속 일부가 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에게 교환학생은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서 그 나라의 문화, 색깔, 가치관, 역사 등을 배울 수 있는 터닝포인트였습니다.

UCM을 선택한 이유는 제 전공 학과가 있는 학교가 미국 내에서 UCM포함 두 곳 뿐이었는데 그 중에서 UCM이 더 다양한 전공 및 교양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학교 내에 국제학생 커뮤니티가 잘 활성화 되어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명대학교와 UCM은 오랫동안 교환학생 체결을 맺었고 상명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UCM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온 학생분들의 다양한 후기들을 읽을 수 있었으며 가장 검증된 학교라고 생각이 들어 UCM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UCM를 선택한 것에 후회는 없으며 학교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UCM에서 교환학생을 하며 저의 많은 부분이 변화했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을 하며 얻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 째로, 영어입니다. 다들 영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거같은데 물론 한국에서 영어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영어 회화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해서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영어가 부족한 상태로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대화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인종차별을 받지않을까 걱정도 되었으나 미국에는 정말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국가이다 보니 다양한 영어 발음에 사람들이 적응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영어를 좀 버벅이더라도 대부분의 미국분들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할 것입니다. 미국분들은 생각보다 정말 친절하셨고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영어로 발표를 하거나 사람들과 얘기할 때 편안하게 말할 수 있으며 생활에서 필요한 영어는 모두 자연스럽게 습득되기 때문에 영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늘 영어에 노출이 되고 영어를 입밖으로 내뱉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보니 매 순간순간이 영어의 연속이었습니다.

두번 째로, 저의 내적 변화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내향적이고 남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오고 저를 좋게 봐주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저의 성격은 밝고 외향적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고 낯선 사람들과도 얘기하고 토론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있을 때보다 저를 더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솔직해 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양한 교내행사, 친구들과 파티, 여행 등을 하며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문화를 알 수 있었고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매일 배구, 야구, 농구와 같은 스포츠를 즐기며 운동을 취미로 가질 수 있었고 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번째로 UCM에서 좋았던 점들은 교내에 교환학생 커뮤니티가 잘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국제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며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제학생커뮤니티를 통해 처음에 도착한 순간부터 떠나는 날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은 일반학생들과 다르게 학점에 대한 부담이 적어 내가 관심있는 분야의 수업을 자유롭게 선택해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진, 드로잉과 같은 순수예술에 관심이 있어서 그 쪽 수업을 수강했고 한국에서는 듣기 어려운 수업이다 보니 잘 수강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술, 디자인 전공이 아닌 분들도 이런 수업들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고 댄스수업, 볼링수업 등 재밌는 교양이 수업이 많으니 다양하게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UCM은 미주리 주에 다소 외각에 위치하여 도시와 다르게 대중교통이 없고 인프라는 열악한 편이지만 암트랙을 타면 캔자스시티, 시카고와 같은 도시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학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 저렴하고 물가도 대도시에 비해 합리적인 편입니다. 학교 안에서는 담배, 술, 마약이 금지되어서 치안은 정말 안전하였습니다. 밤 늦게 돌아다녀도 학교 안은 안전하였고 학교 안에 헬스장, 볼링장, 푸드코트 등이 잘 구비되어 학교 안에서 놀아도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만약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를 좋아하신다면 도심 쪽에 있는 학교를 추천드리고 안전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선호하신다면 UCM같은 컨트리사이드에 위치한 학교를 추천드립니다.

SSAP 참여 보고서를 마치며 1년 동안 타지에서 동고동락한 같은 학교 친구들과 제가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대학생활 중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단연 말할 수 있으며 교환학생을 다녀온 후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모두 대학생활 중 한 번은 해외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나를 찾기를 바랍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나현준
학번(연도만) 및 전공	19 학번 만화애니메이션 학과
파견시기	2 학기부터 익년도 1 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the Incarnate Word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4 년 07 월 02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내용

UIW 를 선택하게 된 이유

저는 애니메이션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교환학생 경험이 커리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교환학생을 다녀온 친구의 강한 추천으로 고려하게 되었고, 교환학생을 통해 전공을 살리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3 학년 2 학기는 졸업작품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교환학기를 여행하면서 편하게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공수업을 들을 수 있는 파견제도로 정규교환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 조사한 결과, UIW 가 유일하게 3D 애니메이션 전공이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지역 및 생활에 관한 정보

San Antonio 는 텍사스의 도시 중에서도 멕시코 문화와 밀접한 도시입니다. 학기 초에 알라모 전투 유적지를 탐방하는 것이 재미있으니 추천드립니다. 또한 여기 날씨는 엄청 변덕스럽습니다. 더울 때는 38 도까지 올라가지만, 추울 때는 패딩을 입어야 할 정도로 추운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증이 있다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버스를 탈 때 VIA 버스 어플을 이용해 학생 계정으로 받는 패스를 보여줘야 하지만, 학생증을 보여주기만 해도 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무료라 시내를 돌아다니기 편리하지만, 배차 간격이 길어 우버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버스를 타고 15 분 정도 가면 한인마트가 있습니다. 한국 과자나 라면이 그리울 때 종종 찾아갔습니다.

기숙사 생활은 1 학기에는 아보카, 2 학기에는 세인트 조셉에서 지냈습니다. 아보카는 거실과 주방이 있는 구조로, 2 인 1 실의 방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수업 건물과 가까운 장점이 있습니다. 세인트 조셉은 1 인실로, 화장실을 하나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세탁실과 주방은 층마다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식사는 밀플랜을 이용합니다. 밀플랜별로 일주일 동안 한정된 횟수의 스와이프를 제공받으며, 학생식당에 입장할 때마다 한 개씩 차감됩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다이닝 달러도 제공해줍니다. 이 다이닝 달러로 학교 내 패스트푸드점, 매점, 피자집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순으로 가격이 비싸지며, 급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스와이프가 제공됩니다. 대신 급이 올라갈수록 다이닝 달러는 줄어듭니다.

수강 과목, 수업 활동에 관한 정보

저는 전공공부를 위해 학교를 선택한 만큼, 전체 수업의 70% 정도를 전공수업으로 들었습니다. 수강신청 전에 전공 학과장님께 메일을 보내 시간표를 추천받아 그대로 제출하여 수강신청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 외에 좋았던 과목으로는 운동 수업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수영 수업을 들었는데,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크고 깔끔하며, 비싼 운동기구들이 많습니다. 수영수업의 경우 다이빙 선수들을 위해 깊은 곳도 마련되어 있으며, 넓은 레인을 거의 혼자서 사용했습니다. 수업도 체계적이고 학생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샌안토니오는 멕시코와 인접하여 스페인어 사용자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스페인어 수업이 많으니, 스페인어 수업을 꼭 UIW에서 들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업에서 배운 표현을 식당 직원이나 친구들과 사용하면서 빠르게 늘 수 있습니다.

조언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간 지내보면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 학생들은 학기말이 되면 영어에 자신감이 붙어 의사소통에 문제없는 수준으로 실력을 끌어올립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무엇이든 시도해보세요. 하루하루 한 문장씩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영어 실력이 발전해 있을 것입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구선민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19 휴먼지능로봇공학과
파견시기	2023학년도 하계방학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
자매교명	UMKC
국가	USA
보고서 제출일	2024년 6월 28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사진 첨부 가능) 본 자료는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학생에게 공개됩니다. 이탤릭체로 작성된 안내 내용은 제출 시 삭제해 주시고, 이하 내용 작성 시 폰트 형식이나 크기는 변경하지 말아 주세요. 작성된 자료는 <https://goo.gl/bLPVRK> 로 업로드 바랍니다.]

내용

먼저 저는 미국 미주리주에 켄자스시티에 2학기동안 파견되어 생활을 하였습니다.

1. 도시: **Kansas City**(이하 **KC**)는 외국인한테는 유명한 도시가 아니지만 미국 내에서는 작지 않은 도시이고 최근 미국 미식축구 결승전인 슈퍼볼에서 2년 연속 우승한 팀인 **Kansas City Chiefs** 가 있는 도시입니다. **KC**는 미국 중부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4계절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40도 겨울에는 -30도로 우리나라보다 더 큰 기온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부 특성상 습하지 않아 여름에는 그늘에 있으면 서늘하고 땀도 많이 안나서 체감상 괜찮습니다. 겨울 또한 습하지 않아 바람만 피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보다 덜 추운 거 같습니다. 도시의 다운타운은 큰 건물들이 많고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외각으로 나오면 높은 건물들이 거의 없는 맑은 하늘을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2. 학교 위치: 학교는 다운타운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고 학교에서 도보로 15분 떨어진 곳에 **South Plaza**라는 쇼핑거리가 있어 쇼핑, 외식등을 다 도보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UMKC**의 큰 장점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학교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 위치해있고 대중교통이 없어 학교에서만 생활해야 합니다. 하지만 **UMKC**는 도시와 공항에서 멀리 떨어져있지 않아 정말 좋습니다. 공항까지는 차로 30분정도 걸립니다. 학교 주변에 쇼핑거리와 공원, 미술관, 박물관등이 있어 학생들 뿐 아니라 현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학교 시설: **UMKC**는 솔직히 큰 학교는 아닙니다. 약 10~15개 정도의 건물이 있고 걸어서 20~30분 정도면 학교를 다 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들이 신식 건물이 많이 있고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1년동안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건물은 학교 체육 시설인 **Swinney Center** 입니다. 5개의 농구 코트, 헬스장, 수영장, 연습실등의 시설이 있고 농구, 축구, 탁구, 스쿼시, 배구, 배드민턴, 피클볼등 다양한 스포츠를 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배구 동아리에 가입하여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습니다. 실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가입할 수 있고 다들 즐기면서 웃으면서 게임하고 대화하며 동아리 활동이 진행됩니다. 또한 저는 주 3~4회 정도 농구를 하였는데 이 또한 픽업게임 형식으로 함께 게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농구

를 하며 친해진 친구들과 교내 리그에 나가서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에도 많이 갔는데 헬스장에서 친구를 가장 많이 사귄 수 있었습니다. 2~3번 눈이 마주치면 서로 인사하고 화이팅하고 운동을 알려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모든 스포츠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 뿐 아니라 수건과 얼음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센터 탈의실과 샤워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농구, 배구, 축구팀이 있어 무료로 미국 대학 리그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4. 학교 프로그램: 제가 UMKC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입니다. UMKC는 외국인 학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브라질,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고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는 학교 어학 프로그램으로 1학기를 보내고 2번째 학기에는 정규 수업을 들었습니다. 어학 수업은 읽기 and 단어, 듣기 and 말하기, 쓰기 and 문법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4개의 레벨이 있어 자신의 실력에 따라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토플 점수가 있거나 학교에서 하는 입학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이 수업들을 안 듣고 정규 수업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UMKC프로그램에 있어 가장 좋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학교환학생으로 파견된 학생이 정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정말 잘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과대학교 학생이라 공대 수업을 듣고 싶어 UMKC측에 요청 하였다니 공과대학교와 협력해서 전공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한국인 교수님들이 3분정도 계셔서 교수님들에게 연락 하면 미국 대학원등에 관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5. 교내 알바: 저는 학교 체육시설인 Swinney Center에서 Lifeguard로 일했었습니다. Swinney에서 일하는 한국인 유학생분을 만나서 친해지고 그분의 추천으로 일했습니다. 메일로 지원하고 면접을 보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급은 12불이었고 일의 난이도는 정말 쉬웠습니다. 휴식 시간도 잘 보장해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도서관, 기숙사, 교내 카페등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 자신이 하고싶은 일을 찾아 해보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영어 실력과 미국 생활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6. 여행: 저는 약 10달을 미국에 있으면서 콜로라도, 워싱턴 DC, 뉴욕, 올랜도, LA,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보스턴을 여행했습니다. 한 도시를 여행하는데 총 100~150 만원 정도 소비했던거 같습니다. 그중 콜로라도는 차를 빌려서 로드트립 여행을 하였습니다. 같이 교환학생을 간 한국 친구들과 갔는데 편도 9시간의 긴 운전이지만 정말 시간가는줄 몰랐고 저에겐 너무나도 크고 좋은 경험이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습니다. 교내 알바로 모은 돈을 전부 여행을 소비했습니다. 미국은 학기마다 추수감사절, 봄방학이 있어 1주일정도 학교가 쉽니다. 그래서 2달에 한번정도 여행을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행했던 도시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콜로라도는 케나다까지 연결되어 있는 로키산맥의 시작점이 있는 미국의 주 입니다. KC에서 차로 9시간 비행기로 1시간반 정도 떨어져 있으며 하이킹의 성지 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로 정말 깔끔하고 평화로운 도시 입니다. 엄청 높은 건물이 없고 박물관, 국회의사당, 백악관, 공원 등 다양한 시설들이 정말 아름답고 계획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뉴욕은 엄청난 경제 도시로 꺼지지 않은 야경과 분비는 사람들이 있는 정신없지만 멋있고 한번쯤은 꼭 경험해야하는 도시 입니다. 올랜도는 디즈니월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는 도시로 놀이동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추천 드립니다. 하지만 디즈니월드,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제외하면 다른 볼거리는 크게 없습니다. La, 라스베가스, 샌프란 시스코는 서부 여행으로 한번에 여행하는데 서부의 여유로움과 사막, 도시, 바다의 조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시카고는 뉴욕, LA 다음으로 미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이며 가장 최신 도시라 건물들이 정말 높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카고가 제일 좋았습니다. 높은 건물들과 여유로운 사람들이 주는 느낌이 미국에 계속 있었지만 미국에 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느끼지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보스턴은 한국에 귀국하기전에 마지막으로 혼자 여행했

7. 는데 많은 대학들이 있는 도시라서 거리가 비교적 관리가 되어있었고 아름다웠습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박지현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학번 행정학부, 글로벌 경영학과
파견시기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4 년 06 월 20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내용

1. 파견대학에 관한 기본정보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는 Warrensburg라는 미주리의 작은 도시에 위치한 대학교입니다. 학교 캠퍼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나 대체적으로 시설이 깔끔한 편이고 체육관이나 도서관 같은 부대시설이 잘 되어있습니다. 또한 바로 근처 작은 다운타운이 있어 공강이나 수업이 끝나고 방문하기 좋습니다.

2. 지역 및 생활에 관한 기초 정보

1) 날씨

날씨는 한국과 같이 4계절로 이루어져 있으나 한국보다 기온이나 날씨의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여름은 많이 더운 편이지만 대부분의 건물에서 항상 에어컨을 가동하기 때문에 추위를 탄다면 걸 옷을 챙겨 다니는 걸 추천합니다. 겨울의 경우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거나 눈이 많이 내려 학교가 종종 휴교를 하기도 합니다. 또 휴대폰으로 허리케인 주의 알람이 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본격은 없었습니다.

2) 주변

근처 다운타운으로 내려가면 카페, 식당, 상점 등이 있어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다만 카페의 경우 영업 종료를 굉장히 일찍 하는 편입니다. 다운타운 이외에도 학교 근처 걸어갈만한 식당들이 위치해 있어 학식이 질리거나 기숙사에서 먹기 싫을 때 주로 이용했습니다. 또한 다운타운에는 암트랙 역이 있어 Kansas city와 같은 도심이나 시카고로 여행을 가기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Kansas city는 기차 시간표가 많지 않아 당일치기로 갔다 오기에는 무리가 있는 편이며 연착이 빈번하고 기차를 이용하는 도중 1시간 정도 멈춰 있었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 공항을 갈 목적으로 Kansas city 행 암트랙을 이용할 경우 넉넉히 시간을 두고 티켓을 사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학교 근처에서는 Uber와 Lyft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암트랙이외에는 차가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기 힘듭니다.

마트의 경우 월마트와 '하이비'가 있는데 월마트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셔틀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때 나눠주는 셔틀 시간을 참고하여 이용할 수 있고 하이비의 경우 걸어서 20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이비는 운영하는 셔틀이 없어 걸어가야 합니다) 두 곳의 차이점이라면 월마트는 규모가 크고 파는 물품의 종류가 다양하며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하이비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며 가격이 월마트에 비해 조금 더 비싸지만 좀 더 신선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아시아 음식 재료들을 많이 판매하는 편입니다. 참고로 Warrensburg 주변에는 한인 마트가 없기 때문에 주로 Wee!라는 온라인 아시아 마켓을 이용해 먹고 싶은 한식 재료나 과자를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3. 수강과목 및 수업활동에 관한 정보

1) 가을학기

- Fndts of Financial Reporting
- Principles of Macroeconomics
- Experiencing Music
- Spoke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2) 봄학기

- Principles of finance
- Writte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 Floral Design
- Photography

- 수강신청의 경우 재학생이 신청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마감된 수업이 많습니다. 마감된 수업의 경우 **waitlist**에 올리거나 교수님께 메일을 드리면 됩니다. 수강신청 시 선수과목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할 경우 혹은 다른 부차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교환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Wesley**에게 메일로 문의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선택 시 교양이라는 개념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공학점을 인정받지 않는 과목을 고를 경우 다른 학과의 전공 수업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심사를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수업을 이해하고 시험을 볼 때 더 수월합니다.

- 미국은 한국과 달리 과제와 시험이 많아 12학점을 들었음에도 그리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들은 수업들의 경우 대부분 4번의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중간중간 교수님께서 **Quiz**나 **Paper**작성 같은 과제를 내어 주셨습니다. **Photography**와 **floral Design** 수업은 이론과 실습을 모두 포함하는 수업이라 수업시간에 직접 실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제출하는 과제도 있었습니다. **Spoken/Writte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수업은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과목들이라 정말 기초적인 부분들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현지 학생들과 함께 들을 수 있는 **composition**이나 **Public Speaking**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4. 기타 수업 외 활동에 관한 정보

1) 동아리

저는 **ISO**만 참여하게 되었는데 **ISO**는 대부분의 국제 학생들이 속해 있는 동아리로 학기 중 캔자스 시티 트립, 푸드 쇼, 펍킨 패치, 게임 나잇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초반에 멤버십 가입을 통해 돈을 내면 위와 같은 활동 들을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환학생이 참여하는 동아리인만큼 학기 초에 관련 설명을 할 때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ISO** 이외의 동아리는 **club fair**(학교 동아리 홍보하는 날)에서 관심있는 테이블로 찾아가 이름을 작성하거나 친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운동 경기

학교 홈페이지나 게시판에서 농구, 배구, 풋볼 등 다양한 경기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CM** 학생들은 학생존에서 무료로 경기들을 관람할 수 있어 친구들과 함께 경기를 보며 친해질 수 있습니다.

5. 기타

1. 기숙사

저는 두 학기 동안 **The Crossing**에서 거주했습니다. **The Crossing**의 경우 4인실과 2인실로 나누어지며 구조는 공용 거실, 주방과 개인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빨래방의 경우 건조기 2개와 세탁기 2개가 있고 앱을 설치해 남은 시간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 중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각 층의 **CA**에게 메일로 문의하면 됩니다.

2. 밀플랜

가을학기에는 25개 밀플랜과 다이닝달러를 필요할 때 충전하여 사용했습니다. 다이닝달러는 학교 내부 식당이나 스타벅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봄 학기에는 50개 밀플랜을 신청하여 사용했는데 기숙사에서 요리해서 먹거나 학교 근처 식당에서 사 먹은 경우가 많아 학기 말에 20개 정

도가 남았습니다. 다이닝달러의 경우 학기 중간에 100달러를 충전 시 10달러를 추가로 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주로 충전하였습니다.

3. 식당

- **The Crossing** 바로 옆에 위치한 **Spin! Pizza**에서는 피자, 샌드위치, 샐러드 등을 파는데 앱을 다운받으면 피자와 샐러드 세트를 무료로 먹을 수 있습니다.
- 도미노 피자 매장 근처에 **Break Time** (편의점)이 있는데 24시간 영업이라 급하게 사야 할 것이 있거나 간식이 먹고 싶을 때 이용하기 좋습니다.
- **Yummy Donut**은 도넛과 버블티를 판매합니다. 맛있지만 단점은 영업시간이 아침 6시에서 오후 1시까지로 정말 짧아서 수업이 비는 시간이 있는 날에 가거나 주말에 갔습니다.
- 이외에도 **Sabai Thai Cuisine, Ping's Hibachi, King's Chef Buffet** 등 다양한 음식점들이 학교 근처에 있어 하나씩 가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 **Uber eats**나 **Door dash**과 같은 배달 앱을 이용해서 시켜먹을 수도 있습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배수연
학번(연도만) 및 전공	21학번 영어교육과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Missouri Southern State University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4년 5월 20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1) 파견 대학 및 지역 정보

저는 장학교환으로 미국 중부 미주리주에 위치한 Missouri Southern State University에 총 두 학기 동안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학교명을 줄여서 MSSU라고 하겠습니다. MSSU는 미주리주에서도 꽤나 작은 도시인 Joplin에 위치해 있습니다. Joplin은 기독교 특성이 꽤나 강한 도시이며 아시아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코리안 마켓은 없고 아시아 마트가 작게 하나 있으며 한식당도 작은 식당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월마트에서 기본적인 라면이나 김치, 만두 같은 음식은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변 도시인 스프링필드로 나가면 한식당이나 코리안마켓에 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리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Joplin에 사는 아시아인의 인구가 적지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친절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Joplin의 날씨는 대체적으로 좋으나 바람이 많이 부는 편입니다. 가을 학기에는 굉장히 더운 날씨부터 꽤나 쌀쌀한 날씨까지 겪을 수 있으니 옷을 다양하게 챙기는 것이 좋으며 봄 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에는 토네이도가 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대피소가 기숙사 건물 사이에 위치해 있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도 운행 중지 상태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마트나 식당에 갈 수 있습니다.

(2) 기숙사 및 생활 정보

기숙사로는 총 5가지 타입이 있으며 가격순으로 Quads, Lionvillage, East Hall, Apartment, McCormick이 있습니다. Quads는 가장 가격이 높은 기숙사로 4명에서 한 집을 사용하며 각방, 각화장실이 있고 큰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또한 방안에 세탁기, 건조기가 있습니다. 많은 국제학생들이 Quads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 Lionvillage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로 총 3가지 옵션이 있는데, Suites는 4명에서 한 집을 사용하며 각방, 2개의 화장실이 있고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살았는데 1층이 아니라면 아주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ionvillage Traditional은 1명 또는 2명에서 한 방을 사용하며 방에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고 화장실은 층마다 있는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전자레인지나 냉장고도 없으니 요리를 거의 할 수 없습니다. Lionvillage에는 층마다 양쪽 끝에 세탁기, 건조기가 각각 4대씩 있습니다. 다음으로 East Hall은 4명에서 한 집을 사용하며 2개의 방, 2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실에 냉장고와 전자레인지가 있어 간단한 요리는 가능합니다. Apartment도 2개의 옵션이 있는데, 기본은 4명에서 한 집을 사용하며 2개의 방 1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거실에 냉장고와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또는 Semi-Private 옵션을 선택한다면 2명에서 2개의 방과 1개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자 기숙사, 남자 기숙사 빌딩이 있는데 여자 기숙사인 McCormick Hall은 1인 1실 또는 2인 1실로 냉장고, 전자레인지가 없으며 층마다 있는 공용화장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파견 초반에 이 기숙사로 배정받았는데 별래도 잘 들어오고 화장실도 칸이 많지 않아 많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없는 기숙사 건물에 거주한다면 식당 건물 1층에 있는 세탁기, 건조기를 사용하거나 Lionvillage에 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세탁, 건조는 무료로 각자 세제만 준비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

숙사 간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Quads나 Lionvillage Suite에서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마음에 드는 기숙사를 선택하지 못했더라도 기숙사에 도착하고 나서 변경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은 식당에서 Meal plan을 무조건 선택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5, 10, 15, 20끼를 선택할 수 있고 대부분의 학생이 5끼 혹은 10끼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식당의 메뉴가 그리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매일 샐러드와 과일, 피자과 햄버거 같은 메뉴가 고정적으로 나오고 매주 메뉴가 요일별로 비슷한 편입니다. 금방 질리기 쉬운 메뉴들이기 때문에 15끼 이상을 선택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것 같습니다. 기숙사에 주방이 없다면 10끼, 주방이 있다면 5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Meal plan을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Lion Bucks라는 것이 \$200 주어지는데 이는 학교 건물에 있는 Lion's Den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곳에서는 Pizza Hut, 햄버거, 샌드위치, 카페, 간단한 간식이나 아침식사, 요거트 등을 판매합니다.

(3) 수강과목 및 수업 활동

수업은 Orientation 후에 Advisor와 상의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전공 상관없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3, 4학년 수업과 같이 고학년의 수업이거나 선수 과목이 있는 강의의 경우에는 교수님께 직접 연락해 동의를 구하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장학 교환으로 갔기 때문에 따로 영어 시험을 보지 않았지만 어학 교환의 경우 Michigan English Test를 Orientation기간에 치른 후 결과에 따라 ESL 강의와 함께 정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으며 거의 모두가 ESL강의 외에도 정규 수업을 원하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교육과이기 때문에 전공 수업으로 Literature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문학 수업은 매 수업마다 미리 읽어야 할 Text의 양이 아주 많고 수업에서도 Discussion이나 발표를 자주 하는 경우가 잦으니 꼭 들어야 하는 상황이거나 문학을 특히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다른 수업을 들으시는 것이 자유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업을 듣고 나서 많이 배우긴 했지만 학기 동안에는 과제와 수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 참고로 English 전공의 고학년 수업은 교수님들이 수강 신청을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riminal Justice 전공의 저학년 수업들은 굉장히 신선하고 부담도 적은 수업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국제학생들이 수강했습니다. Art 전공 저학년 수업도 난이도가 낮고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도예 수업이나 Criminal Justice 전공 수업 같은 한국에서 듣기 쉽지 않은 전공이나 수업들로 수강 신청을 하신다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 학기 중 여행 (방학)

가을 학기는 학기 중 휴일과 방학이 총 3번 있었고 봄 학기에는 봄 방학 1주일이 주어집니다. 학기 중에 시카고, 뉴욕, 텍사스, 델러스 등으로 여행을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가을 학기는 노동절, 가을 방학, 추수감사절이 있어 여행을 갈 기회가 더 많고 봄 학기에는 1주일이라는 나름 긴 기간의 방학이 있지만 이 기간 외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표를 잘 조정하시어 공강을 만든다면 더 많은 곳으로 여행을 갈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추가 정보

MSSU에서는 국제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Friendship Family 프로그램은 현지 가족과 국제학생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학생 2~3명 당 1가정이 배정됩니다. 이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고 도움을 받을 일도 많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거의 모든 국제학생이 신청하는 편입니다. 또 Conversation Partner 프로그램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MSSU 기독교 학과 학생, 또는 Ozark Christian College의 학생을 국제 학생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학생을 쉽게 사귄 수 있습니다. 같이 Joplin시내 또는 근처 다른 도시로 놀러가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6) 후기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면 적극적인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에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지 않는다면 현지 학생들도 우리에게 큰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Joplin은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잘 아는 학생이 많지 않아 한국을 잘 알고 관심이 많은 학생을 만난다면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을 학

기에는 한국, 일본 학생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현지 학생을 사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봄 학기에는 국제학생들이 적었기에 한국, 일본 국적의 학생 외에도 더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금방 적응할 수 있고 영어로 말하는 시간을 늘릴수록 영어 실력이 더욱 빨리 성장할 수 있으니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두 학기를 있었음에도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동안 알차게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모두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교환학생이라는 경험을 통해 얻은 것도 많았고 배운 점도 많았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이주연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 행정학부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 ~ 2024학년도 1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4년 6월 18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내용

1. 파견교 정보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는 missouri 주의 warrensburg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Warrensburg는 매우 작은 도시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인 Kansas city international airport에서 차로 한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학교 근처에는 amtrak을 탈 수 있는 union station이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기숙사

Apartment와 residence hall 두 가지 타입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저는 apartment인 the crossing 에서 생활했습니다. The crossing의 경우 개인 방이 있고 나머지 공간을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residence hall 과 달리 부엌이 있어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수업

저는 2학기에 financial reporting, experiencing music, spoke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writte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수업을 들었고, 1학기에는 elementary spanish, floral design, principle of finance, photography수업을 들었습니다.

Financial reporting 과 principle of finance 수업의 경우 전공과목이었는데 두 수업 모두 교수님이 친절하시고, 퀴즈와 과제만 열심히 한다면 학점을 받기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퀴즈와 과제가 많아 시험을 한 번 못 보더라도 남은 것을 열심히 하면 학점 자체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Spoke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와 Writte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의 경우 국제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입니다. Spoke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의 경우 말하기 보다는 발표 수업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Writte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의 경우에는 미국식 글쓰기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Experiencing music의 경우 클래식 음악을 듣고, 음악 이론을 공부하는 수업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연주회를 관람하고 두번의 에세이를 제출해야합니다. 시험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Elementary spanish의 경우 스페인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강을 해서 처음에는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친절하시고, 시험 점수를 잘 주시는 편입니다. 미국에서 영어로 스페인어 수업을 들어보는 경험은 색다른 것 같아 추천합니다.

Floral design 수업은 식물에 관련된 기초 이론을 배우는 시간과 실습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퀴즈와 시험은 모두 오픈북으로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Photography 수업은 사진에 대한 기초 이론, 카메라 사용법 및 사진 촬영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여러 기법을 사용해 다양한 사진을 찍어 볼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대한 한국에서 듣기 힘든 수업이나, 전공과 관련없는 수업을 많이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미국의 수업 방식도 겪어보고, 여러 분야를 경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전공 수업이 아닌 다른 수업을 많이 들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4. 그 외

ELI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이를 통해 kansas city에 있는 country club plaza나 야구 경기 관람, 뮤지컬 관람, 영화 관람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Kansas city가 가깝지 않아서 이런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박수안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19 / 한일문화콘텐츠전공 & 글로벌경영학과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Missouri Kansas-City
국가	USA
보고서 제출일	2024년 7월 3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내용

저는 UMKC에 총 2학기동안 장학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다녀왔습니다. UMKC는 미국 미주리주에 있는 학교로서, 주변에 관광지나 여행지가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 중부에 위치해 있어서 어느 곳이든 가기에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연휴나 방학을 이용해서 총 6번 정도 미주 여행을 했어요. 또한, 주변 인프라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시골이라는 인식이 강한 주이긴 하지만,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인프라인 것 같습니다. 식당은 학교식당에서 챙겨먹었고(밀플랜 구독해두면 편합니다) 기숙사도 학교와 멀지 않습니다. (Hospital Hill이라는 기숙사는 셔틀버스로 등하교를 해야하니 자가용이 없으시다면 피하시는 게 좋을 듯 해요) 또한, 걸어서 20분 정도의 거리에 플라자가 있어서 쇼핑, 외식 등 필요한 정도의 여유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 상 차가 없으면 정말 불편하기 때문에 멀리 나갈 일이 있다면 불편함은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상생활 하는데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학업에 관해서 말해보자면, 기본적으로 12학점은 수강을 해야하고, 제가 파견되었던 23년 2학기에는 오로지 인문사회대학의 수업만 수강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다른학교에서 파견된 교환학생 친구가 여러모로 부탁드려본 결과, 저는 24년 1학기에 경영대학에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 파견되실 분들께서는 어떤 조건으로 수업을 듣게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알아보고 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저같은 경우는 그쪽 학교 프로그램 담당자와 잘 얘기해서 두번째 학기에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학교 분위기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조용하고 깔끔한 학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처리가 한국보다 느린 것이야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무언가 일처리가 미흡하다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면 협의의 여지가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제학생으로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학교측과 협의하는 것을 용이할 듯 합니다. 또한, 행사가 많이 열리는 편입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매주 매일 다른 행사에 참석할 수도 있으니 꼭 참여 많이 하셔서 다양한 경험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숙사를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Hospital Hill 로 처음 배정을 받았다가, 너무 크게 불편함을 느껴 한달 후 Johnson hall 로 이동을 했습니다. Hospital Hill은 차로 1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기숙사로서, 시설은 자취방의 몇배로 좋으나.. 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셔틀버스로만 이동이 가능하고, 지역버스도 이용은 가능하나 치안이 안좋은 부근을 지나다니기 때문에 현지인들도 지양하는 분위기여서 정말 통학하기 힘듭니다. 본인이 자차가 있거나 기숙사 시설이 가장 중요하신 분들께만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동한 Johnson hall 은 기본적으로 2인 1실, 4인 1화장실 시스템입니다. 두방이 한 화장실을 공유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 기숙사에

비해 불편은 합시다만.. 전 학교에 거의 있다가 기숙사에서는 잠만 잤어서.. 문제는 크게 없었어요. 대신 룸메 by 룸메인건 어느 나라든 똑같으니 행운을 바랍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이소은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학번 한일문화콘텐츠
파견시기	2023 2학기- 2024 1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4년 6월 6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1. 파견 대학 및 기타시설

제가 교환학생을 다녀온 학교는 미국의 Warrensburg에 위치한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입니다. 큰 도시에 위치한 학교는 아니라 주변 편의 시설은 적었지만 학교 교정 시설이 좋았고 수업이 있는 시간대에는 학교 내에 스타벅스, 패스트푸드, 다이닝 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중심 작은 타운이다 보니 치안은 생각보다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카페는 오후 1시나 2시쯤 영업을 종료합니다. 큰 쇼핑몰은 없지만 작은 빈티지 샵 등은 있습니다. 학교 밖 다운타운은 크지 않고 햄버거 가게와 작은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2. 기숙사 및 밀 플랜

저는 The crossing 이라는 교내 아파트에 머물렀습니다. The crossing 중에서도 Garden 이라는 형태에 머물렀습니다.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방 내의 계단이 따로 있어 1층과 2층이 나누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총 4명이 머무는 기숙사를 이용했습니다. 각 방이 따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방음 등은 생각보다 잘 되었습니다. 주방에 식기 세척기와 냉장고, 조리시설들이 잘 되어있으며 방도 혼자 사용하기에 충분히 넓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시설 또한 지내는 내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주방을 이용하려면 1층에 내려가야 하는 구조라 요리를 하거나 음식을 먹어야 할 때 살짝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크게 불편한 사항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The crossing에 거주하여 요리가 가능하기에 밀플랜을 많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각 학기별로 25개 정도 신청했는데 매번 요리하기 귀찮을 때 가끔 이용하는 정도라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다이닝 홀이 The crossing 위치 기준으로 살짝 먼 위치라 The crossing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만약 요리를 즐겨하시는 분들은 굳이 신청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3. 학교 수업

저는 IEP 수업과 정규 수업을 함께 들었습니다. IEP 수업은 에세이 작성 방식, 발표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해당 수업은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함께 듣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천천히,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거나 수업 참여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업은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편하게 이야기 하는 분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복수전공인 마케팅으로 전공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처음 수업에 참여했을 때는 교수님의 말이 정말 빨라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하고 제가 힘든 부분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또한 점차 익숙해집니다. 수업은 학생들의 참여가 자유로웠습니다. 교수님의 의견에 의문이 생기면 학생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교수님께서도 수용하시며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과 특성상 팀프로젝트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클라이언트와 연계하여 프로젝트도 진행해 볼 수 있고 실무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4. 기타 프로그램

국제 학생들의 위한 ELI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캔자스시티에 있는 야구장, 아이스 하키, 연극 등을 보러 가거나 그 외 미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혼자 찾아서 다니기는 어려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만족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미국 현지 가족들을 연계해주는 **friendship family**와 국제 학생 동아리 (ISO) 등 국제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5. 후기

미국에서의 약 9 개월의 생활이 저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었고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하면서 일상에서 쓰이는 다양한 표현도 배울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또한 미국의 수업방식을 경험해 본 것도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방학기간 동안 미국의 다양한 도시를 여행할 수 있어 큰 도시의 생활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황현서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0, 영화영상전공
파견시기	2023 학년도 2 학기부터 익년도 1 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4 년 6 월 10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위치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는 Missouri 주의 Warrensburg 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소도시에 자리 잡고 있어 Kansas City 는 차로 1 시간 정도의 거리, St.Louis 는 3 시간 정도의 거리로 차가 없다면 쉽사리 움직이기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사실상 시골이기 때문에 주변에서의 즐길 거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를 넘기면 조금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을학기는 학기의 시작으로써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내의 액티비티 및 행사

Gym 에서 진행하는 Roller Night, Laser tag, Elliot Student Union 에서 진행하는 볼링 포함 다양한 이벤트 등이 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영화도 상영해줘 학생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이벤트는 Elliot Student Union 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Karaoke Night”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Union 에 있는 podium 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ELI(English Language Institute)에서도 다양한 행사나 액티비티를 주최합니다. 차량을 지원해주어 Kansas City 에 있는 근처 쇼핑몰, Dinner Theater, 학교 근처 영화관인 AMC, Royals 야구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요. IEP(Intensive English Program)학생들은 모든 활동의 비용이 포함되어 따로 비용을 내지는 않으나 그 외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은 각 행사에 맞게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무료로 진행되는 행사들도 있어요! Thanksgiving 에는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 모두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기도 했어요. 직접 준비해 오신 미국 Thanksgiving 음식들을 맛볼 수 있어 경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ISO(International Student Organization)에서 진행한 웬만한 이벤트들을 다 참여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나 볼 수 있고 Game Night 이라는 것을 자주 해 친구들과 보드게임, 닌텐도 스위치 등 다양한 게임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Homecoming parade 라고 해서 각 나라마다 그룹별로 국기를 들고 학교를 돌며 어린 아이들에게는 사탕을 나눠주고, 어른들에게는 다가오는 International Food Show 전단지들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11 월 중순쯤 있었던 International Food Show 는 ISO 에서 주최한 행사이며 각자 본인의 나라를 대표하여 직접 요리를 하고 각 나라의 전통 음식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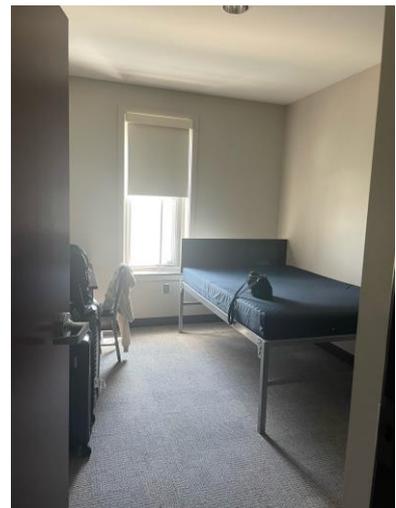
가을 학기에는 The Crossing 앞 필드에서 학교 미식축구 게임도 자주 하는데 물을 잘 모르시더라도 재밌으니 꼭 보러 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 외에도 학교 자체에서 여는 행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을학기는 봄학기보다 비교적 바빠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숙사

기숙사는 처음에 Houts 라는 Residence hall 기숙사에 배정되었지만 미국으로 떠나기 몇 주 전에 The Crossing 이라는 아파트형 기숙사(2인실)에 추합 되어 거기서 생활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숙사 지원할 때 Residence hall 을 먼저 지원하시고 바로 아파트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형은 ‘그 다음날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 100 달러를 두 번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Residence Hall 신청할 때 한번만 내면 됩니다.) 대부분이 Residence Hall 보다는 아파트형 기숙사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시설이 확실히 깨끗하고 각 방을 사용할 수 있고, 2인 1 화장실, 부엌이 집 안에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부엌이 있기에 요리해 먹을 생각으로 밀플랜은 따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Residence hall 에서 사신다면 밀플랜을 필수로 신청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The Crossing 에서 사시면 선택입니다. 본인이 요리해 먹기 귀찮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을 밀플랜을 신청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식이 그리우신 분들은 일요일마다 근처 한인교회에서 예배 후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수업

미국의 수업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밝고 적극적인 분위기입니다. 한국과 달리 발표가 굉장히 자연

스러운 수업 방식이에요. 나와서 발표하는 것만이 발표가 아닌 학생들이 교수님 말씀 중간중간 손 들고 본인들의 생각을 얘기한다든가 교수님도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너무 완벽한 대답을 하고자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정말 솔직한 본인의 생각을 말해도 학생들이나 교수님께서 무조건 존중을 해 주시니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12 학점 이상만 채우면 되고 교환학생으로서 수업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의 전공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들어보고 싶었던 수업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을학기에는 Introduction to Mass Communication(3 학점), Drawing(3 학점), Stage Makeup(3 학점), Intro to Theatre and Dance(1 학점), Discovering Theatre(3 학점), Professional Practices(1 학점), Production Practicum(1 학점) 이라는 수업들을 들었고 연극전공의 수업들이 궁금해 대부분 연극 수업들로 선택했으며 평소에 그림 그리는 것에 관심이 많아 Drawing 수업도 선택했었어요.

봄학기에는 Multimedia Production(3 학점), Media Aesthetics(3 학점), Film Appreciation(3 학점), Elementary Spanish(3 학점) 이라는 수업들을 들었고 3 개는 제 전공에 맞는 DMP 수업들을 선택했으며 상명대 수업에서는 스페인어 수업이 없기도 하고 스페인어 공부를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서 스페인어 수업도 선택했었습니다. 수업 선택지는 굉장히 많으니 잘 찾아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시 자체가 백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동양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되게 신기하듯 쳐다보거나 왜 이 곳까지 교환을 왔냐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행히 인종차별은 학교에서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여행

가을 방학, Thanksgiving, 겨울 방학, 봄 방학 기간에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을방학은 주말을 제외하면 비교적 짧은 편이라 오래 여행을 할 수는 없지만 Thanksgiving, 봄방학은 일주일 정도로, 여러 곳은 힘들더라도 한곳을 여행하기엔 충분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 방학은 약 한 달로 이때 여행해보고 싶었던 곳들을 다 가보기 좋습니다! Kansas City 나 St.Louis 는 Amtrak 으로 갈 수 있는 거리이며 Chicago 는 비행기로 가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한 번쯤 Amtrak 을 타고 가거나 돌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Amtrak 으로 10 시간 정도 갑니다.)

우선 영어로 수업을 듣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영어 실력 향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학업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다양한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며 시야를
넓히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었어요. 대도시든 소도시든 장단점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든 본인 하기 나름이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의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김량현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011151-화학에너지전공
파견시기	20 학년도 하계방학 동계방학 2학기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정규교환(2학기)
자매교명	Arkansas state university
국가	United States
보고서 제출일	2024년 5월 23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1. 내용

저는 미국 남부의 Jonesboro, Arkansas 주에 위치한 Arkansas State University에서 두 학기 동안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선택의 이유는 학교의 위치나 주변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잘 발달되어 있고 학교의 규모가 잘 발달되어 있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교환학생 동안 느낀 점 및 도움이 될 만한 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기숙사

저는 North Park Quads 건물에서 두학기를 모두 보내었습니다. 4인실 각방 구조로 화장실과 거실을 룸메와 쉐어하는 구조로 되어있었으며 이 방은 개인공간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가장 큰 장점은 개인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크게 방해 받지 않으며 생활할 수 있으며, Laundry 건물이 가깝다는 장점과 이에 대응해서 큰 단점은 룸메이트와 자주 시간을 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방이 없기에 전자레인지부터 냉장고 등 모든 것들을 알아서 구비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격대가 높은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생활 해보고 Collegiate Park로 옮기는 것을 추천드리며 실제로 많은 국제학생들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저는 미국인 3명과 생활했으며 모두 친절하게 도와줬던 기억이 있고 이 건물이 신입생 위주이기에 참고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수업

저는 다른 학생들과 비슷하게 12학점을 수강하였으며 전공 4과목, 교양 2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이곳이 실험수업을 3시간 수업에 비해 1학점만 주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강신청은 한국에서 미리 하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담당자와 이메일로 소통해서 신청하는 구조이기에 희망하는 수업을 듣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 참고 바라며 공대 전공수업들이 한국에 비해서 매주 시험, 과제가 있다는 점 참고해서 시간표를 신청하면 좋을 것 같네요. 교양 수업 중에는 잘 찾아보시면 학점 따기 쉽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으며 저는 포토샵 수업 또는 도자기수업을 추천 드립니다.

(3) 성적

미국 수업의 시스템의 경우에는 대체적으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과제가 많았으며 특히 매주 있는 퀴즈가 성적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기에 학기 중에는 매주 바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국과 다른 점은 성적이 상대평가로 결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A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매 수업마다 끝나고 복습만 철저히 한

다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수업 내용 또한 스스로 모르는 단어들을 찾아보고 한다면 교수님께서 쉽게 잘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을 참여하고 교수님께 스스로 없이 질문을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을 적극 추천 드리며 항상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업 출석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수업들이 성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면 크게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업 외적으로 튜터링 프로그램도 과목별로 있기에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과목들에 참여한다면 성적은 물론 다양한 사람들 과도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잘 활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4) 생활

수업 외적으로는 학교 내에 위치한 체육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요일별로 무료로 Pilates나 Yoga 수업 또한 제공되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위치한 Jonesboro의 경우 Campus town이기에 학교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무료 셔틀이나 미국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우버를 이용해서 학교 밖으로 나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다양한 식당, 쇼핑센터 등 인프라가 나름 잘 되어있기에 주말마다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거 같습니다. 차로 1시간 반정도 가면 공항과 함께 큰 도시인 Memphis, Tennessee가 있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 드리며 꼭 Memphis hot chicken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5) 기타

학교 학식 외로 flex라고 캠퍼스 내에서 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가 있으며 캠퍼스 내 Starbucks나 Chick-fil-A, Bagel store에서 사용 가능하기에 추천 드립니다. 지역 특성상 동양인을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남부 사람들 특성상 대부분 친절하기에 먼저 잘 다가가기만 한다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방학은 봄방학, 겨울 방학, 여름 방학이 있는데 학기 중간중간에 있는 휴일들을 잘 활용하여 다른 주로 여행을 가거나 미국인 친구와 로드트립을 다녀오는 것을 추천 드리며,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6) 기타

모르는 정보들을 얻는 것은 한국인 유학생들이나 룸메들에게 물어보면 잘 도와주며 구글 맵이 워낙 잘 되어있어 길 찾거나 장소 찾기 같은 것은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버 앱은 정말 필수이기에 다운 받아오는 것을 추천 드리며 웬만하면 짧게 있지 않는 이상 미국에서 계좌 여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은행은 Bank of America 추천 드리는데 어디를 가나 있으며 한국 카드나 미국에서 작은 은행사 카드를 사용할 경우 다른 주에서는 결제가 안될 수도 있기에 참고 바랍니다. 팀 문화에도 어느정도 찾아보시고 익숙해지셔서 오시는 것 추천 드리고 항상 밝고 자신감 있게 생활하신다면 정말 좋은 추억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김기찬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18학번 / 공간환경학부
파견시기	2023 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U.S.
보고서 제출일	2024 년 5월 14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1. 위치

UCM은 missouri 주 내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 **Warrensburg** 내에 위치해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도시가 캔자스 시티인데 차로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말이 좋아서 도시일 뿐이지 시골입니다. 현지인들이야 차가 있으니 생활에 불편함은 없겠지만 저희같은 교환학생들은 월마트 또는 하이비 같은 대형마트에 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캠퍼스 기준으로 월마트까지 걸어서 약 40분 정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도중에 인도가 없어서 자동차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야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도 암트랙이라는 기차의 역이 다운타운 입구에 있어서 근처 도시들인 캔자스 시티, 세인트 루이스, 또는 시카고까지 싼 가격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속도는 새마을호와 비슷한 정도라 시카고까지 10시간 조금 넘게 걸립니다. 그래도 기차 안에 간단한 요깃거리들을 판매해서 버틸 수는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꼭 차가 있는 미국인 친구를 사귀시는 게 삶의 질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2. 생활

우선 학교, 또는 국제학생단체에서 여러가지 이벤트를 주최하긴 하지만 절대다수의 날들은 매우 심심하고 할 것들이 없습니다. 물론 그 시간을 진로에 대해 고민한다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로 금, 토요일 밤에는 학생들끼리 기숙사 방에서 파티를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티가 성격에 맞지 않으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한번 짬은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단순히 노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결국 UCM이라는 고립된 장소 안에서는 친구들을 빼면 할 수 있는게 극히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사는 직접 요리를 하거나 시켜먹거나 **dining hall**을 이용하게 됩니다. 다이닝 홀에는 델리, 엔트리, 샐러드, 피자, 햄버거 등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지만 나오는 메뉴들이 크게 다양하지가 않아서 금방 질리게 됩니다. 만약에 한식을 드시고 싶으시면 Weee!라는 어플을 통해 다양한 한식 및 아시아 음식 재료들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주 일요일 10시 20분에 한인교회 버스가 더 크로싱 건물 앞으로 오는데, 예배 이후 불고기, 제육볶음, 김치찌개 등 다양한 한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가끔씩 김치가 남으면 싸갈 수도 있습니다.

3. 기숙사

기숙사는 **apartment**와 **residence hall**로 나뉩니다. 더 크로싱이 가장 새롭게 지어진 기숙사이며, 하나의 방 안에 거실과 부엌, 그리고 2개 혹은 4개의 개인실이 있습니다. 방마다 부엌이 있으니 요리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더 크로싱을 제외한 다른 건물들은 대부분 레지던스 홀이며,

레지던스 홀은 2명이 한 방을 같이 사용하고, 2개의 방이 하나의 화장실을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부엌 또한 건물에 있는 공용 주방을 사용해야하므로 요리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건물들이 낡아서 생활 공간이 크게 보기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더 크로싱으로 이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4. 수업

다양한 수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댄스, 합창, 연기, 그리고 요리와 같은 흥미로운 수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런 수업들은 보통 학기 중 혹은 학기 말에 공연을 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 관련된 수업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수업들 역시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public speaking** 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학기 중에 자유주제로 발표를 4 차례 하여 정돈되게 발표하는 방법 및 무대공포증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이 스피킹이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수업에 도전해보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어학 수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 주 때 보는 영어시험 점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어학 수업이 제한됩니다.

수업이 따라가기 어렵다면 언제든지 교수님에게 질문하면 친절하게 도와주시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질문이 자유로운 분위기이므로 너무 눈치 안보셔도 됩니다.

5. 어학

영어가 확실하게 습니다. 비록 UCM에 한국 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용하게 되는 언어는 영어이기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실력은 늘게 됩니다.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다고 하여 굳이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를 끊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6. 후기

비록 조그마한 도시이긴 하지만 그렇기에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시골벽적인 도시가 아니라 평화로운 일상을 체험하고 싶다면 UCM 추천드립니다. 근처에 농장과 녹지가 많다는 것은 서울과 미국 도시에서는 하지 못할 여러 자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농장집 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운 채 스모어를 만들면서 수다를 떠다거나, 호수 공원에 앉아서 피크닉을 즐긴다던가, 다운타운에 있는 엔틱크 샵 등의 아기자기한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역시 친절하며 여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날에는 가끔씩 인종차별을 당하는 날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들 국제학생들에게 굉장히 잘 대해줍니다. 사실 도시에서의 삶은 서울과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부는 동, 서부와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안지은
학번(연도만) 및 전공	경영학부 20
파견시기	2023학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Missouri Kansas City (UMKC)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4년 7월 4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저는 UMKC에 1년 동안 정규 교환학생으로 다녀왔어요. UMKC는 Kansas주와 Missouri주 중간에 걸쳐 있는 Kansas City안에 있어요. KC는 한국처럼 4계절이 있지만, 여름엔 훨씬 덥고 겨울엔 훨씬 추웠어요. 그래도 더울 때 습기가 없어서 좋았어요. 날씨가 맑을 땐 하늘이 정말 예쁘고, 밤에 별이 진짜 잘 보여서, 맨날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별 봤었던 기억이 나요. KC 풋볼팀인 chiefs가 2년 연속 우승해서 풋볼이 가장 유명한 것 같고, 학교 주변에 걸어서 갈 수 있는 플라자가 있어서 쇼핑도 쉽게 할 수 있었고 맛있는 것도 쉽게 먹을 수 있었어요.

[기숙사]

기숙사는 Oak street hall(Osh)과 Johnson hall 둘 중에 고르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Osh는 학교 캠퍼스 안에 있고, Johnson은 학교 중심부까지 가려면 15분 정도 걸어야 해요. 저는 Osh에 1년 동안 쪽 살았었고, 다른 교환학생들도 처음엔 Johnson이나 hospital apartment에 살다가 나중엔 다 Osh로 이사했어요. 건물 시설 자체는 Johnson이 새로 지은 건물이라 깨끗하고 좋아요. Johnson에 살았던 친구 말로는 방이 좀 좁은 것만 빼면 좋았다고 했어요. 저는 Osh 살면서 Johnson hall 가장 부러웠던 점이 모든 층에 식수대가 있는 거였어요. 엘리베이터도 좀 더 빨라요. Osh는 지은 지 좀 오래되었지만 방이 넓고, 학교 시설들까지 걸어가는 게 훨씬 가까워요. 저는 학교와 가까운 점이 가장 좋았고, 전체적으로 제가 상상했던 미국 학교 기숙사랑 비슷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Osh 1층(basement) 출구 쪽에 smart market 있어서 편했어요!

[meal plan/Flex]

기숙사 사는 학생들은 아마 무조건 Meal plan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Meal plan은 말 그대로 학교 dining hall 들어가는 식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두 학기 모두 1week/12meals(이게 최소였음)로 했었고, 전혀 부족하지 않았어요. 같이 갔던 여학생들은 대부분 여유로웠고, 남학생들은 조금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위에서 말했던 smart market에서 meal swap(meal plan) 사용 가능해서, dining hall에서 밥 못 먹게 되거나 안 먹고 싶을 때 거기서도 많이 사 먹었어요.

Flex는 학생증에 돈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개념인데, 처음 Meal plan 선택할 때 옆에 적혀 있을 거예요.(매번 충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음) 학교 내부에 있는 모든 store에서 Flex 사용할 수 있고, Meal plan 결제할 때 세금포함한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Flex 쓸 때는 세금미포함 가격으로 계산돼요.(그러니 Flex 먼저 다 쓰고, 다른 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음)

매주 자신의 Meal plan 현황과 Flex 얼마 남았는지는 Get mobile이라는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어요.(밀에 유용했던 앱들 따로 정리해서 적어 뒀어요!)

[학교 주변 자주 갔던 곳]

Pizza51

: 동네 주민들이 많이 가는 피자 가게. 풋볼 경기 할 때 여기서 중계 틀어줘서 피자, 맥주 먹으면서 경기보고 그랬음. 야외 테이블도 있어서 가을에 거기서 맥주 마시고 놀았어요.

Wholefood market

: 미국에서 유명한 유기농 마트임. 가격이 사악하지만 학교에서 제일 가깝기 때문에 제일 자주 갔었던 것 같아요.

Kin Lin

: 중식당 이고 볶음밥, 오렌지 치킨이 맛있음.

CVS

: 미국 편의점 느낌인데 다 팔아요. 저는 첫 학기엔 잘 몰라서 많이 못 갔었는데 두 번째 학기에 진짜 많이 갔어요. 주변에 월마트나 타겟이 없으니까 여기서 필요한 거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아마존이 더 싼 경우도 많으니까 가격 중요하면 비교해보고 사는 거 추천)

Chipotle

: CVS 근처에 있고, 진짜 맛있어서 다이닝 홀에서 밥 먹기 싫을 때 많이 갔음. Bowl 시키면 한 번에 12볼 정도 나오는데 양이 꽤 많아서 한 번에 다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이벤트]

Campus group이라는 앱을 깔면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이벤트들을 다 알 수 있어요.

저는 가을학기에 스포츠 경기를 정말 많이 봤어요. UMKC학생이면 학교 내에서 하는 경기들은 전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요. 축구, 농구, 배구 전부 다 있고 학생들이지만 진짜 선수들처럼 잘 해서 항상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스포츠 경기 이외에도 영화 상영, 가라오케, 요가, pumpkin 만들기, caramel apple 만들기 등등 엄청 많으니까 잘 보고 원하는 이벤트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강신청]

Pathway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manage class 누르면 수강신청 할 수 있는 창이 떠요. 우리나라 처럼 장바구니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전체적으로 느긋하게 둘러보면서 강의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저는 가을학기에 수강신청을 조금 늦게 해서 듣고 싶었던 강의가 마감되었더라고요. 봄 학기에는 빨리해서 그 때 놓쳤던 강의를 들을 수 있었어요.

[수업추천]

*Introduction of Film (film230)

영화보는 거 좋아하면 정말 추천하는 수업이에요. 미국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전형적인 미국대학의 강의였어요. 계단식 대 강의실에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거리낌 없이 대화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정말 신기했던 수업이에요. 매주 영화보고 감상문 쓰는 과제가 있지만 별로 어렵지 않고, 시험이 없어서 좋았어요. 교수님이 점수도 잘 주셔서 편하게 들을 수 있던 수업이었어요. 단점이라면 수업에 노트북 사용 금지이고, 월요일 오후에 3시간이라 살짝 졸리다는 점이 있지만 3시간 풀로 강의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 괜찮을 것 같아요.

*General psychology (psych210)

한국에서부터 심리학 수업을 듣고 싶었고, 다른 교환학생 후기를 보다가 이 강의 추천하는 것을 보고 저도 꼭 들어보고 싶었어요. 우선 이 수업은 출석체크를 딱히 하지 않아서 매우 좋았어요. 교수님이 예습으로 책 읽어오라고 하시고, 수업 시작 전에 5분 정도 옆 사람이랑 읽어온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주는데 애들 대부분 처음에만 하고 후반에는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것 같았어요. 시험은 온라인 테스트였고, 객관식이어서 어렵진 않았어요. 중간에 과제가 몇 개 있는데 그리 어렵지 않아서 쉽게 했던 것 같아요.

*Introduction to Journalism (comm203)

자기 의견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평소에 뉴스 보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면 완전 추천하는 강의예요. 교수님이 매 수업 시작하면서 뉴스에서 어떤 얘기가 흥미로웠는지 물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뉴스 기사 쓰는 방법도 배우는데 관심 없던 분야여서 새롭고 신기했어요. 교수님이 실제로 KC 라디오도 진행하시는 유명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학생들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교환학생들 얼마나 힘들지 아신다며 위로도 받았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는 학생들끼리 팀을 나눠서 지나가는 사람 인터뷰도 하고 영상 찍는 활동도 했어요. 저널리즘 쪽에 아예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다면 정말 비추천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한 번 정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매주 말을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있지만 이런 수업도 미국이 아니면 절대 들어볼 수 없는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학생들도 열정 넘치고 교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weight, badminton, yoga

운동하고 활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대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언제 들어보나 싶었고, 저는 나름 힐링 되는 시간을 보내서 너무 좋았어요. 이 수업들은 각각 1 학점라서 만약 듣고 싶다면 3개 묶어서 한 번에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수업시간에 배드민턴과 요가, 그리고 웨이트를 해요. 웨이트는 헬스장에서 그냥 1시간 동안 자기 운동하는 수업이에요. 물론 나중에 시험이 있긴 한데 그냥 외우면 되는 거고, 중간에 교수님께 여쭙보면 알려주긴 하시지만 저는 그냥 제 운동 했어요. 배드민턴도 실제로 팀 나눠서 배드민턴만 1시간 동안 쳐요. 요가도 마찬가지로요.

*Astronomy: Starlight and Star stuff (astr155)

천문학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추천하고 싶어요. 토론 과제가 좀 많아서 귀찮긴 한데, 온라인 강의라서 직접 강의실 안가도 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유용했던 어플]

“Canvas student”

: 강의안, 퀴즈, 과제, 강의 일정 등 강의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 존재

“Campus groups”

: 학교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이벤트들 날짜별로 확인 가능
(Ex)스포츠 경기 일정, 요가 수업, free food 등

“Get Mobile”

: meal plan 현황이나, flex 얼마 남아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Starbucks”

: 한국 어플과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버전으로 설치해야 교내 스타벅스에서 사용 가능
(앱스토어 국적을 미국으로 변경 해야 설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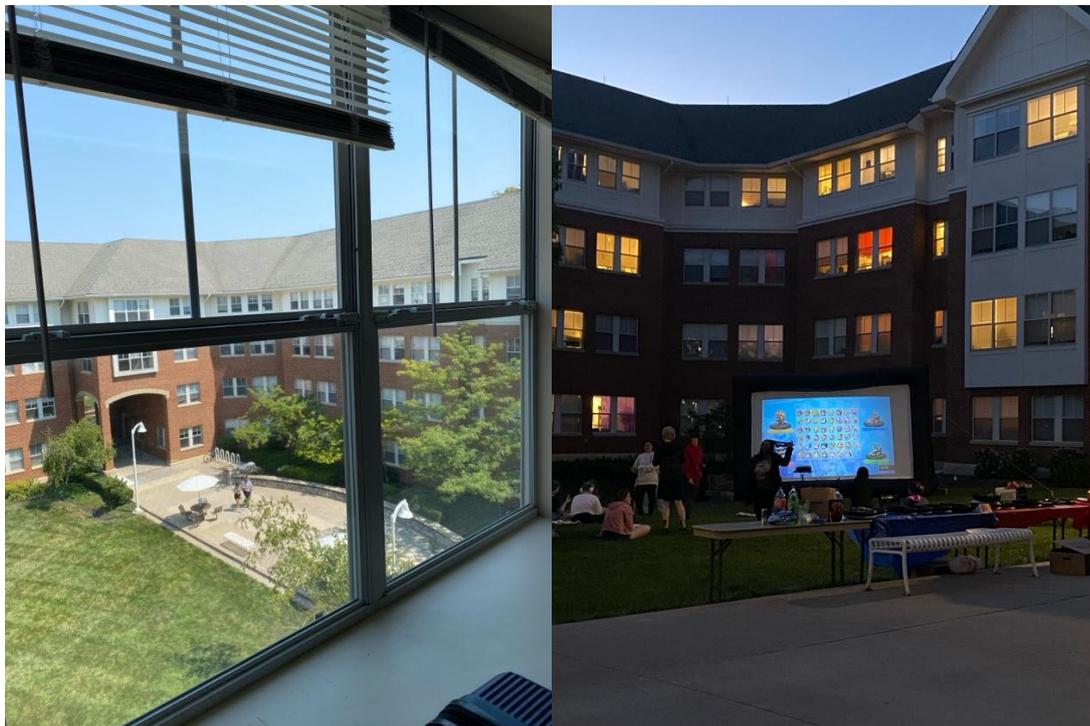
[여행]

저는 **thanksgiving**, 겨울방학, 주말을 이용해서 계속 여행을 다녔어요. 생각보다 여행 할 수 있는 시간이 꽤 많고, 돌아오기 직전에도 종강을 빨리해서 그 때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짧게 여행 갈 때 기내용 캐리어 있으면 수하물 비용 아낄 수 있으니까 기내용 캐리어 꼭 가져오는 거 추천하고 싶어요. **Thanksgiving** 주에는 거의 일주일 동안 학교 전체가 쉬기 때문에 이 때 여행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겨울방학은 1달 정도여서 짧긴 하지만, 저는 그 때 서부 여행 다 하고 왔어요! 방학에는 학교 식당도 문을 닫고 춤기도 하고 학생들도 대부분 없기 때문에 서부 쪽 여행 다니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시간표 짜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금요일 공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 금, 토, 일 이렇게도 여행 3번 정도 다녀온 것 같아요. 시카고, 보스턴, 마이애미, 텍사스 이런 곳은 주말 꺼서 짧게 갔다 와도 좋았어요. 샌프란, LA, 라스베이거스(그랜드캐년), 시애틀, 포틀랜드 이렇게 서부 쪽은 모여 있어서 방학에 한 번에 돌아오고, **thanksgiving** 때 뉴욕 워싱턴 다녀왔어요. 봄학기 중간에 봄방학도 일주일 있는데 저는 이 때 갈 여행지가 없어서 그냥 학교에서 밥 해 먹고 놀았어요. 여행은 다니려고 한다면 시간은 충분히 많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느낀 점]

우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값진 경험들을 했고, 한국에서는 절대 느껴보지 못할 많은 감정들도 느낄 수 있었어요. 생각의 틀도 많이 바뀌었고 여러모로 조금은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환학생 다녀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미국 가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듣기에 진짜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 다녀와서 다른 영어공부를 하다 보니 1년 동안 지내면서 그래도 귀가 많이 트였다는 걸 알게 되어서 더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영어실력 향상에는 외국인 친구 사귀는 게 제일 좋은데 위에도 말했지만 저는 같이 간 한국인이 대충 10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노는 일이 많았었고 그래서 좋았기도 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솔직히 새로운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한국인들끼리 의지할 수 있어서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인 친구들과 제가 생각했던 것 만큼 많이 놀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수업 듣는 친구 중에 친해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먼저 말 걸고 다가가면 잘 받아주는 것 같으니 그런 식으로 친구관계 넓혀가는 거 추천해주고 싶어요! 물론 룸메이트를 잘 만나는 게 제일 쉽게 사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제일 힘들고 답답했던 것 같아요. 상명대에서 처음으로 협력한 학교라서 그런지 정규교환학생에 대한 절차와 토대가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아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제가 메일로 소통했던 부분이 많이 힘들었고, 같이 가는 다른 사람들과 절차도 다르고 담당자도 달라서 어떻게 해야 할 지 헷갈렸던 부분이 많아서 그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장학금 처리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마감 기한에 맞게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제가 받을 장학금이 마감 기한 지나서 적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 문제 등 말로 하기 복잡한 문제들이 너무 많았고 머리 터지기 직전에 일이 해결되어서 참 다행이었어요.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일 처리 방식이 느리고 속 터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미국에서는 필요한 게 있거나 이걸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office hour 맞춰서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게 제일 빠른 해결 방법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Oak street hall



축구 경기장



학식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최민석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 스페이스디자인
파견시기	2024학년도 하계방학 동계방학 2학기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2학기 2중) 단기언어문화연수(방학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4년 6월 8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사진 첨부 가능) 본 자료는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학생에게 공개됩니다. 이탤릭체로 작성된 안내 내용은 제출 시 삭제해 주시고, 이하 내용 작성 시 폰트 형식이나 크기는 변경하지 말아 주세요. 작성된 자료는 <https://goo.gl/BLPVRK> 로 업로드 바랍니다.]

내용

지난 두 학기간 UCM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으로 공부하다 왔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과 제가 보고 느꼈던 것들을 짧지만 적어보겠습니다.

- 1) 짐은 어떻게 싸야하는가?
 저도 그랬고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옷은 사계절 옷을 다 챙기시는게 좋습니다. 여름 겨울이 확실하게 바뀝니다. 단, 너무 많이 가져갈 시 돌아올 때 짐이 넘쳐 국제택배를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가격이 엄청 비싸진 않았습니다.(16kg에 100달러정도. 한인 택배회사 쉬핑투홈 추천)
 그리고 물이 많아서 쇼핑 생각보다 많이 하실겁니다. 나중되면 옷이 산더미입니다..
 품클렌징은 사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 로션이나 샴푸 이런건 다 여기와서 사셔도 무방합니다. 연도기 고데기 마트에 다 있습니다.
- 2) 생활비는 얼마정도인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한달에 옷사고 좀 많이 쓰면 7-800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끼는 팁은 요리를 해드시면 외식비+팁이 줄어 엄청난 절약이 가능합니다. 레스토랑 가면 기본 2-30은 깨집니다.
- 3) 날씨는 어떤가?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습한 게 덜해서 좋았습니다. 여름에는 정말 덥고 겨울엔 정말 춥습니다.
- 4) 학교 주변 시설
 광시골은 절대 아닙니다. 주변에 식당가도 꽤 많고 월마트 포함 식자재마트가 여러곳 있습니다. 문제는 걸어가기에는 살짝 먼 곳이 많아서 친구 차나 셔틀을 이용하시거나 배달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5) 치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10시 이후에 돌아다니면 총맞을까봐 집에 얼른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밤늦게 다녀도 어차피 캠퍼스 안이기 때문에 그닥 위험하지 않습니다.

니다. Security도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조심하시고.. 캠퍼스 밖으로 밤늦게 걸어나가면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Shooting이 학교 내에서는 없었는데 타운에서는 몇번 있었던 걸로 압니다. 어딜가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십시오.

6) 영어실력 향상 및 의사소통

저는 1년간 있으면서 영어가 좀 늘은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한국어를 최대한 쓰지 말아보시고 발표기회 있으면 열심히 준비해가셔서 많이 뽐어보시고.. 영어를 쓸 상황을 본인이 만드셔야 합니다. 미국인-국제학생 친구들도 사귀고 방에서 혼자 유튜브 보면 교환학생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기에.. 많이 참여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7) 추천하는 활동

저는 안했지만 국제학생 동아리 ISO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국제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고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 나온 김에 해외 공모전도 찾아서 해보시고 미국 친구랑 친해져서 집에도 놀러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미국 가정이랑 커넥트 시켜줘서 일주일에 한번인가 저녁식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미국 가정집은 어떠한 분위기인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행도 방학때 꼭 계획 미리짜서 다녀오시는걸 추천드립니다.

8) 근처 맛집리스트

PHO 4 U, SABAI THAI, APPLEBEE 등..

이상입니다 즐거운 교환학생 생활 보내세요!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유진하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1 스마트정보통신공학과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 2024학년도 1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
자매교명	UCL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국가	영국
보고서 제출일	2024년 07월 05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사진 첨부 가능) 본 자료는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학생에게 공개됩니다. 이탤릭체로 작성된 안내 내용은 제출 시 삭제해 주시고, 이하 내용 작성 시 폰트 형식이나 크기는 변경하지 말아 주세요. 작성된 자료는 <https://goo.gl/BLPVRK> 로 업로드 바랍니다.]

내용

저는 영국에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경험한 시간을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떠나기 전: 교환학생을 떠나기 전, 저는 상당히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가본 적 없는 새로운 나라로 가는 것도 부담이었지만 그보다 더 어렵게 느껴진 것은 혼자 살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몇가지 안되는 소지품만 가지고 떠난다니 약간 외로운 느낌도 났습니다.

첫째 주: 운 좋게 플랫 메이트들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혼자 여유있게 적응해볼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학교는 유학생들을 위한 모임을 마련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몇 명 만나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기숙사 구조: 제가 배정받은 아파트에는 1인당 방 4개, 공용 주방, 공용 화장실과

욕실이 있었습니다.

둘째 주: 수업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각 수업에 대한 소개가 대부분이어서 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조금씩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매 수업을 같이하다 보니 대화의 기회가 많았습니다.

수업: 모두 4개의 수업이었습니다.

1. 공학 분석 : 공학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수학 개념을 배움.
2.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 "MatLab"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배움.
3. 전자 및 전자 공학 실습: c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과 임베디드 시스템을 배우는 수업
4. 디지털 전자 및 프로그래밍 가능 시스템: 다양한 회로 구성 요소에 대해 배우고 회로를 만들어야하는 수업

셋째 주부터 겨울 방학까지: 영국에 혼자 있다보니 밥을 해먹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 저는 먹는 것에 대해 까다롭지는 않지만 매번 사먹기도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들어서 직접 요리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작은 냄비, 도마, 칼, 포크 하나, 주걱 하나밖에 없었고 새로운 물품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매한 물건 : 조리기구

1. 냄비
2. 프라이팬
3. 터퍼웨어
4. 식기류(포크, 숟가락, 칼, 젓가락)
5. 계량컵
6. 베이킹 트레이
7. 받침 망
8. 가위

이 물건들은 제가 영국에 있는 동안 주방에서 가장 자주 사용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물건들을 구입하면서 제가 배운 것은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고민을 충분히 해서 한꺼번에 다 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같은 가게에 여러 번 가며 시간낭비를 했습니다. 제가 배운 또 다른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처음부터 그냥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2학기까지 가위를 사지 않았습니다. 이사 후에도, 캔 따개를 사지 않고 그냥 캔 없이 열 수 있는 캔만 샀습니다. 물건을 이것저것 사면 이사하거나 귀국할 때 버리기도 아깝고 딱 맞는 사람을 찾아 주기도 힘들고 번거로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학교나 교회에 이런 중고 주방물품들을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진작 알았다면 필요한 물건들을 그때그때 바로 사고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안했을 것 같습니다.

겨울 방학: 방학동안 할 프로젝트들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양이었지만 다행히

방학이 가기 전에 모든 과제를 완료 할 수있었습니다. 전 그다지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 아니었지만, 혼자 살다보니 좀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모든것을 스스로 알아내고 해내야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저는 질문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지만, 이 프로젝트들을 완성하기 위해 교수님들과 동료학생들을 찾아 질문하고 의논했습니다. 저로서는 매우 큰 변화이고 시도였습니다.

겨울 방학 후: 겨울 방학이 끝난 후 일주일 동안 첫 번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기술 분석" 시험이었는데 그것은 모든 수업 중 제가 가장 잘하는 수업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됐습니다. 영국 대부분의 대학은 커다란 체육관에 학생들을 데려가 모두 함께 시험을 보게 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과 함께 시험을 보는 환경도 불편함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질문을 읽고, 제가 찾은 답을 적고, 몇 분 동안 딴생각도 하며 심지어 빈 종이에 약간 낙서도 했습니다. 이걸 제가 한국에서 하던 행동과 똑 같은 것입니다. 저는 어느새 영국의 낯선 환경 속에서도 제 공부를 찾아서 하고 또 이미 편하게 적응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시험 후 이번 학기 종료까지: 1년 쯤이나 함께 지냈지만 기숙사 친구들과 별로 가까운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서로 만났을 때 인사는 하고 뭔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얘기를 나눴지만 그 외에 우리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친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우리만의 규칙을 만들어나갔습니다. 예를들면 소음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늦게까지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통화했고, 한명은 낮에 기타를 연주하고 노래를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는 방에서 웨이트로 운동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방이 멀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

리는 서로가 소음을 내며 시끄럽게 굴 적에 이해하고 참아주는 대신, 각자 필요할 때 맘껏 시끄럽게 굴자는 우리만의 룰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내향적인 사람이라 이것이 저한테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연말: 시험은 끝났고 수행평가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학기가 끝났으니 원래는 매우 흥분하고 기분 좋았을텐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 사귀 친구는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거나 알바에 바빴습니다. 저는 수업에 집중하느라 동아리나 모임에 별로 참여를 안 했었기 때문에 딱히 속할 그룹도 없었고 외톨이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일찍 귀국해버리고 싶었지만 예정보다 일찍 가면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가만 있었습니다. 빈 시간을 채울만한 알바를 찾으려고도 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알바를 원했다면 미리부터 알아봐야 했습니다. 원래 예정했던 귀국날까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다가 프로그래밍 연습에 집중할 기회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C# 튜토리얼 (교환학생 가기 전 2 학년때 듣고 어려움을 겪은 수업)을 위해 유튜브에서 비디오를 검색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실력이 늘면서 저는 매일 동기가 부여되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노력해서 뭔가를 조금씩 이루는 일이 이렇게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일에 집중하는 사이 학기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영국에서 1년을 보낸 후: 지금 돌아보니 당시 심각하게 여겨졌던 문제들이 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그때는 장애물처럼 느껴졌던 것들이지만 지금 보기엔 그냥 평범하고 자연스런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마치 영국에서 한 해를 시작하기 전의 나에게 편지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비록 미래에서 온 나일지라도 내가 겪은 일을 이해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1년간의 교환학생은 여러가지를 겪고 깨닫게 된 소중한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교환학생 기회를 후배들에게도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영어본

While living in the UK, I had many experiences and broke down the most memorable ones below. They have been divided based on the time and when I felt them.

Before I left: Before I left, I was nervous. Having to live alone for the first time while also in a different country was something I had never experienced anything close to. I had to leave everyone I knew behind and couldn't take most of my belongings, making me feel a bit lonely too.

First week: I had decided to keep a simple journal while in the UK just to write things down. I was lucky and my flat mates had not yet moved in, giving me time to adjust to the unfamiliar environment. This week, the school arranged a gathering for international students. There I met a few different people with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and had fun.

Living quarters: The flat I was assigned had 4 rooms for each occupant, a shared kitchen, and a shared bathroom.

Second week: This was the week classes started. We only went over introductions to the classes so there was not too much to do. I did meet someone, so we started talking. We shared every class, so we had many opportunities to talk.

Classes: I had 4 classes

1. Engineering analysis, where we learned new math concepts.
2. Engineering applications, where we learned how to use a program called "MatLab"
3. Electronics and Electronic Engineering Practice, where we learned how to program in "c" and embedded programming. The classes were 6 hours a week
4. Digital Electronics and Programmable Systems, where we were taught about different circuit components and made our own circuits.

Third week to winter break: I normally attended classes, but I had a new worry coming up that I had to address right away. That was what I would do about my meals. I'm not picky about what I eat, but I did start to think I should start cooking. I had only a small saucepan, a chopping board, a knife, one fork and a spatula up to this point.

Things I bought: Cooking utensils

1. Big pot
2. Frying pan
3. Tupperware
4. Utensils (Forks, spoons, knives and chopsticks)
5. A measuring cup
6. Baking trays
7. Kitchen sieve
8. Scissors

These items were what I used the most often in the kitchen for my stay in the UK. Using these, something I learned is that I should have put more thought into what I needed and bought them all at once. I went to the same store multiple times because I did not do that. Another thing I learned is, I should just buy things that will help me out. I didn't buy my scissors until the second semester. Even after moving out, I didn't buy a can opener and just only bought cans that you could open without one. One worry I did have while trying to buy things were how I would get rid of them. For this, ask your school or maybe a local church. Schools with these programs and churches usually have a donation program going on where you can hand in your used kitchen tools.

Winter break: for our break, we were assigned various projects. Luckily, with the break I was able to catch up and complete my assignments. I had never really been a student to try too hard. But, living alone had made me change in a way that made me want to try a bit harder. Normally, I would not ask questions and let things be, but I sought out classmates and professors to find out answers.

After winter break: I had my first test lined up for the week after winter break ended. The content was for "Engineering analysis," which was the class I was doing the best in out of all the other classes. Even though I knew the content very well, I still felt nervous.

In the UK, most universities take all the students for a test into the gymnasium and test all the students together. Taking a test with so many students had also added to my uneasy feeling. But, when the test had started, I read the questions, wrote down my answers, lost concentration for a few minutes and even doodled a little on a blank piece of paper. These were all things I did back home. From this, I learned that even if the environment is different, at the core all countries are mostly similar.

Till the end of the year: Something I didn't think about till now was that I had never really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my flat mates. We said hi to each other when we saw each other, we talked if something needed cleaning. But besides that, we never talked much. But even though our relationship was not great, we did have a mutual understanding about noise. I stayed up late talking to people back home or online friends, one of my flat mates played the guitar and sang during the day, and another lifted weights in their own room. We let the other be loud when they were loud so we can be loud when we want to. I am a bit of an introverted person, so I feel this was ideal for me.

Year End: My tests were over, and my assignments were all turned in. The year had ended. Usually this would be an exciting time for me, however, most of the friends I had made during the year all moved back home or were busy with work. I was always busy with classes, so I never got into any clubs or social gatherings. I felt left out. I wanted to move back home early, but I didn't want my parents to worry. I tried looking for part time work just to fill the time I had but had no luck. Something I learned from that is, if you want to have a part time job, you should look for one earlier. I spent a few weeks not doing anything, until I decided I wanted to change that. I thought back to the past year, the previous year too. I realized; I could practice programming. I looked up videos on Youtube for C# tutorials (A class I took and struggled with in my second year at 상명대) and started learning. I felt much better and motivated each day. I never thought of myself as a person who needed to do something to not feel so bad, until I started learning again like this. Before I knew it, the time for my flight was already here.

After my year in the UK: All the problems I had in the year now seem like such inconsequential things now that I went through them. What seemed like such a hurdle now just seems like my normal days back in Korea. Writing this, I feel as if I am writing to the me before I started my year in the UK. Things I wish I knew before I moved, that there is someone who understands what I went through, even if it is just me from the

future.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최은재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학번 글로벌지역학부 영어권지역학전공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부터 2024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단기언어문화연수(방학 중)
자매교명	Missouri Southern State University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4년 6월 15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파견대학교 기본 정보

Missouri Southern State University는 미국 중부의 미주리주 조플린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심과 반대인 위치인 시골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기숙사와 학교는 도보 15분거리 정도로 떨어져있으며, 학생식당은 기숙사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규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파견을 가서 1년동안 미국생활을 하였고, 여름에 출국해서 다음년도 5월에 귀국하였습니다.

지역 및 생활 정보

학교를 처음 가시게 되면 호스트패밀리 신청 폼을 작성하고, 배정받는 날이 따로 있어 그때 본인의 호스트 패밀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Conversation partner**는 같은 나이대 친구들을 매칭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호스트패밀리와 컨파 대부분 기독교적인 성향이 강하며 본인이 어떤 사람들과 매칭될 지는 복불복이란 정도 있습니다. 호스트 패밀리의 경제적, 나이대, 성향에 따라 주말동안 자주 만날 수 있거나,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이런부분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배정받은 학생들 경우엔, 다른 학생들처럼 만나는 횟수가 매우 적거나,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 컨파의 경우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은 모두 배정을 받았지만, 저는 배정을 반년동안 받지 못했을뿐더러, 나중에 얘기해서 배정받은 친구도 연락이 거의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경우, 눈치보시지말고 즉각 담당자에게 말하시면 좋습니다.

제 경우엔, 가을학기동안은 매주 정기적으로 호스트패밀리 대표 분께서 국제학생들을 월마트에 데려가 주셔서 식자재나 생필품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월마트는 학교에서 차로 15분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보로는 거의 이동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담당자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봄학기엔 아예 라이딩을 실시하지 않아서 거의 배달비를 지불하고 우버이츠 앱을 통해 타겟에서 물품을 주문해야 했거나, 룸메이트에게 부탁을 해야만 했습니다. 도보로 갈 수 있었던 곳은 학교에서 15분정도 떨어진 주유소와 편의점 개념인 'Lion Stop'과 도보 30분이 좀 넘게 걸리는 'North park mall'이 전부였습니다. 물에는 간단한 패스트푸드점과 일본음식점, 스테이크와 같은 식당이 있고 여러 옷가게나 배스엔 바디, 코스맥스를 판매하는 상점들이 입점해있습니다. 이 이외엔 도보로 이동할 수 없으며 무조건 차를 통해 이동해야만 할만큼 도심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숙사는 아파트먼트 세미 프라이빗 룸에서 생활했는데, 윗집에서 항상 파티와 대마를 했기 때문에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숙사 담당자분께 관련 메일문의를 넣어도 RA에게 전화하라는 답변만 반년동안 받았기 때문에, 만약 본인 기숙사방 옆방이나 윗방이 시끄럽다면, 계속 RA에게 전화를 하거나, 초반에 방을 바꿀 수 있는 시기에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업 정보

저는 학점인정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파견가있는 동안 학과장님께 메일로 교과목을 말씀드리고 전공학점을 받을 수 있는 교과목을 수강했습니다. **Marketing**과목과 **English**과목을 수강했는데, **Marketing** 수업은 팀플이 있어서 매우 초반에 힘들었습니다. **English** 과목 중에선 **Mouser** 교수님 **writing & English** 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도 국제학생들에게 많이 배려해주시고 점수도 잘 주셔서 이 교수님의 수업을 추천드립니다.

수업고르실때, 영어를 많이 늘고 싶다하시면 팀플이나 발표수업, 작문수업을 들으시길 추천드리고, 그것보단 경험이나 좀 더 느슨하게 다니고 싶으시면 **Art**수업이나 **Criminal** 수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배 받으시는 방법은 학생식당 뒷편에 있는 건물에서 **RA**에게 사물함을 신청하고 싶다고 하시면 번호를 고르다음 키를 주시는데 본인의 우편함이라고 생각하시고 건물안에 적혀있는 **International** 주소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택배 배송완료했다고 메일이 와도 직원들이 창고에서 학교 우편함까지 전달하고 **green paper**로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서 메일 받은 날 오후늦게 혹은 다음날 찾아가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 ID 카드에 일정 돈이 학기가 시작되면 들어와서 **book store** 옆 식품파는 곳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남은 잔액은 **Lion 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서, 학식 먹기 싫은날 피자나 샌드위치 드시고 싶으실 때 이용하면 됩니다. 물도 판매하기 때문에, 마트에서 무겁게 물사기 싫어서 저는 그냥 물 구매하는 용도로도 썼습니다.

수업에서 책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고, 어떤 교수님들은 **black board**에 자료를 업로드해주시거나 슬라이드로만 수업을 진행해서 수업첫날부터 모든 교재를 사시기보다 수업들어보면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탁시설은 **Lion village**나 택배받는 곳에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환학생 친구들은 보통 캡슐세제를 사서 간편하게 세탁을 했습니다.

느낀 점

아무래도 저는 인터넷이나 여러 정보에서 봤을때, 시골에 있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더 친절한 사람들이 많다는 글을 봐서 이 학교를 선택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다들 먼저 활발하게 다가가기만 한다면, 친절하게 받아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도심생활을 매우 좋아하거나 편리한 걸 추구하고 많이 내향적인 분들은 학교생활에 있어 매우 힘들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항상 아마존이나 배달앱으로 물건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금액적인 부분이나 배송시간도 오래걸려서 보통 차를 가지고있는 현지인 친구들에게 라이딩을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도 무조건 말로 표현을 하고, 메일문의를 계속해야하기 때문에 친구사귀기 좋아하고 문제를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외향적이신 분들에게 더욱 맞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교환학생을 통해 어려운 일에 부딪혀 볼수록 내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한국과 전혀 다른 문화를 몸소 경험해봄으로써 많은 견문을 넓히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이 교환학생을 간 한국의 다른 학교 학생들과도 더욱 돈독해지며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습니다.